

보도 시점 2026. 5. 28.(목) 12:00
(2026. 5. 29.(금) 조간)

배포 2026. 5. 28.(목) 09:00

과기정통부, 비수도권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폭 지원

- ‘인공지능 중심대학’, 지역 대학을 8개교 추가 선정
- ‘인공지능(AI) 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스타펠로우십)’ 신규과제(20개), 지역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관련 국정과제】 22. 초격차 인공지능 선도기술·인재 확보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역(비수도권*) 대학을 8개교 추가 선정하고, ‘인공지능 스타펠로우십(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을 지역 대학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지역특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전환(AI) 시대 진입으로 산업 및 노동 시장 전반이 인공지능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인재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 공급처인 대학 교육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왔다.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연구·교육 기반 시설(인프라) 등 보유자원이 부족하여 공모 시 선정대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대학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중심대학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중심대학을 지역 대학으로 8개교를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연간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교육체계 혁신을 돕는다.

한편, 지역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뿐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스타펠로우십)’ 사업도 지원한다. 주관연구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하여 비수도권 대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공동연구기관은 타 대학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신진연구자 :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

올해 신규과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산학협력 부문(트랙)’ 과 대학 간 연구 협력과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창출하는 ‘학제연계형 원천기술 부문(트랙)’ 등 2개 부문(트랙)으로 각 10개 과제, 총 20개 과제를 5월 29일(금)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 시 과제당 최장 6년, 연간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그동안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대학이 주도적인 인공지능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균형있게 성장하는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국현 (044-202-6320)
		담당자	사무관	이하은 (044-202-6314)
		담당자	사무관	김주호 (044-202-6318)

